

유럽 통신산업 시장의 현재와 전망

- 한국 통신업계를 위한 제언 -



마이클 캐논(Michael Cannon) / 스코틀랜드 투자개발청

아/태지역 부사장

유럽의 경제적 통합은 통신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1998년 1월 12일 유럽연합은 유럽 통신시장의 자유화를 선언했다.

시장 자유화의 물결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통신서비스 및 관련 장비시장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고있다. 한국의 통신산업은 축적된 기술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I. 유럽, 국가연합의 출발

1957년 3월 25일, 프랑스, 독일(당시 서독),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정치지도자들이 로마에 모여 '유럽 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설립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1951년에 창설된 '유럽 석탄/철강 연합회(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유럽 경제공동체'의 전신이다. 40여년전 시작된 '유럽 경제공동체'는 그 후

엄청난 규모의 확장을 가져왔다. 회원국 수도 유럽 6개국에서 현재 15개국으로 회원국의 인구 수만도 3억7천2백만 여명에 달한다. '유럽 경제공동체'는 GDP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무역블록이 되었다. 여기에 자유시장경제체제로 탈바꿈한 동유럽국가들은 물론 스칸디나비아의 북유럽 국가들이 '유럽 경제공동체' 가입을 신청해놓고 있다. 이들 모두가 '유럽 경제공동체'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럽 경제공동체'

는 30여개국, 총인구 5억5천만 여명에 이르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대 경제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

II. 유럽, 하나의 시장

지난 5월 2일과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11개 회원국에서 온 국가원수들이 모여 유럽통합의 첫 시도로 '유로(Euro)'라는 새로운 유럽 단일

통화를 탄생시켰다. '유로'의 즉각적이고 표면적인 효과로는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경제주체들은 이제 각기 다른 통화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상의 '이전비용(Transaction Costs)'에서 해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비용'의 소멸은 '유로'가 가져올 수 있는 지극히 미미한 효과 중 하나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유로'가 가져올 변화에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유로'는 단순한 통화수단을 넘어서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에 막대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리라는 것이다.

유럽 통화수단의 통일은 바로 유럽의 외교, 안보 그리고 내정 및 사법부의 통일을 위한 첫 걸음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은 바로 유럽 단일 통화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이기도 하다.

때문에 '유로'가 몰고 올 변화의 바람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정치, 경제 구도를 개편할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이번에 '유로'를 공식통화로 사용할 유럽 11개국의 경제규모만 보더라도 이러한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유로-11'이라고 불리는 이들 국가들의 GDP 총액만 따지더라도 전세계 GDP의 19.4%를 차지하고있다. 미국이 전세계 GDP의 19.6%, 일본이 7.7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세계 2위의 경제주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유럽내 국가간의 교역을 제외하고서도 세계무역량의 18.6%를 '유로-11' 국가들이 차지하고있다. 미국의 16.6%, 일본의 8.2%와 비교하면 국제 교역면에서 유럽은 미국을 제친 세계 최대의 무역교역국인 것이다.

이제 서방선진7개국 모임을 이르는 G7을 앞으로는 'G2'(유럽, 미국) 혹은 'G3'(유럽, 미국, 일본)로 불러야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III. 유럽 통신서비스 시장 자유화

거대한 '유럽 경제제국'의 탄생은 유럽 및 세계 통신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통신서비스분야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자. 1998년 1월 12일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의 12개 회원국이 통신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 통신시장은 세계 모든 통신서비스 회사들에게 개방됐다.

유럽 전체가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변하면서 세계의 모든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유럽 통신시장 자유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소비자'들이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 통신시장의 자유화는 '민

영화'와 '기술혁신'으로 인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민영화', '기술혁신' 그리고 유럽 통신서비스 '시장자유화'가 가져온 변화의 징후가 서서히 드러나고있다.

최초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최대의 장거리전화통신회사인 AT&T와 영국 최대통신회사인 BT의 합작회사 설립이다. 미국의 벨, 스프린트, MCI,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프랑스의 프랑스텔레콤, 일본의 NTT 등의 거대 통신서비스업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IV. 통신 기술의 대변혁 예고

유럽 통신시장 자유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기술혁신에 있다.

보다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통신서비스업체들은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AT&T와 BT가 결합하게 된 사실상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다. 지금 전세계 통신서비스 시장에는 거대한 기술혁신의 소용돌이가 치고있다. 단순한 음성통신서비스 시대가 서서히 퇴장할 준비를 하고 음성/데이터/영상 통신이 하나로 통합된 종합 통신서비스의 시대가 서서히 시장의 주류로 등장하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럽 시장의 경우 전체

통신서비스에서 음성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80% 수준. 나머지 20%는 데이터통신이 차지하고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 판세는 오는 2001년경에는 데이터통신서비스가 80% 음성통신서비스가 20%로 대역전이 이루어진다고 분석하고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의 최대 동인은 '인터넷'으로 불리는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s)' 기술이다. IP기술은 음성, 데이터, 영상 자료의 통합네트워크에 이상적인 기술로 평가되고있는 기술이다. IP기술은 기존의 통신네트워크보다 설치비용이 싸고 서비스 또한 장소, 거리에 구애 받지않고 보다 싼 값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통신시장이 자유화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기술혁신 때문이다.

유럽 통신시장의 자유화에 기인한 이러한 시장 변화는 통신서비스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생산업체도 크게 고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통신장비 시장은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기록, 2001년에는 그 시장규모가 금액으로 환산하여 약 48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 통신시장 자유화는 또한 전세계 통신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SDN, GSM, DECT 그리고

무선호출기의 Ermes와 같은 통신기술표준이 개발된 곳도 바로 유럽이다.

마이크로웨이브와 무선 통신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은 음성/데이터 통합 송수신 서비스, 디지털과 아날로그 통신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및 범유럽 통합 통신시스템분야를 자극하여 그 수요가 급증하고있는 추세이다. (별첨 표1: '유럽 통신장비 시장 전망')

유럽 통신시장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이동통신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유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세계적인 조류이다.

아날로그를 이용한 이동통신이 소개된지 10년, 디지털 이동통신에서 GSM방식이 유럽에 소개된지 5년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세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오는 2000년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3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기술 대체도 수요 증가에 한몫 거들고있는 추세이다. 유럽 통신시장에서 디지털 이동통신 단말기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21.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날로그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될 전망이다. 덴마크나 프랑스의 경우 오는 2001년에는 아날로그 이동통신 단말기가 시장에서 완

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별첨 표2: 유럽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V. 양자택일?

No!: 한국 이동통신산업의 예

지금 세계는 '통신대전'의 격랑에 휩싸여있다. IMT-2000으로 불리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의 표준을 놓고 W-CDMA로 대표되는 유럽 진영과 CDMA2000의 한국을 포함한 북미진영이 세계 이동통신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건곤일척의 일대 격돌을 준비하고있다.

기존의 CDMA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한국 이동통신산업의 경우 W-CDMA보다 CDMA2000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됐을 경우가 경제적으로 이득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을 고려해서 한국 이동통신업계는 W-CDMA가 세계 기술표준의 하나로 채택되는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이 W-CDMA나 CDMA2000으로 단일화되건, 아니면 두 기술진영이 영원히 평행선을 그으며 세계의 통신기술을 양분하건 한국의 통신관련업체들은 이와는 별도로 전세계 시장을 보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W-CDMA를 내세우는 유럽

시장, CDMA2000기술을 내세우는 북미시장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에만 매달리기에 너무도 희생이 크다. W-CDMA진영으로 분류되는 유럽 유수의 통신장비 회사들이 현재 한국이나 북미시장을 겨냥해 CDMA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것이나 CDMA2000진영으로 분류되는 북미의 통신장비 업체들이 유럽시장을 목표로 GSM기술을 사용하는 통신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이유를 한국의 통신업계는 곱씹어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표준 선정을 떠나 북미, 아시아, 유럽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시장이다. 이들 기업들은 자국내 시장, 자국이 속한 대륙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VI. 장기적 시장개척 계획의 필요

유럽 통신시장의 자유화는 결국 세계 통신시장 자유화의 전주곡이다. 통신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장비 관련 부품분야에도 자유화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전세계 통신산업이 맞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시장은 더 넓어지고 할 일도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한국 통신업계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계 통신시장의 변화는 반

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있는 세계 통신산업의 변화는 한국 통신업계에 하나의 도전이다. 유럽에서 불붙기 시작한 통신시장의 자유화는 한국의 통신업계에는 ‘강 건너 불구경’의 상황이 아니다. 자유화의 불길에 한국시장에 번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통신업계가 자국내 시장에 안주하며 지금 당장 편히 지낼 때 외국의 경쟁업체들은 시장 자유화의 흑독한 ‘훈련’을 겪으며 경쟁력을 증가시키고있기 때문이다.

유럽 통신시장 자유화는 시장을 개방해도 외부의 경쟁자들과 상대할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시장 자유화’에서 ‘자유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뜻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다. ‘시장 자유화’는 새로운 ‘자유화 블록’의 설정이라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화된 시장’에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누구든 공정한 자유경쟁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 자유화’이다. ‘자유화된 시장’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시장 구성원간 하나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의 시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내 시장도 남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의 시장에는 들어갈 수 있으면서 내 시장에는 나 말고 아무도 못들어 온다’는 것은 ‘무임승차자

(free rider)’의 심리다. 시장 자유화는 이러한 ‘무임승차자’들을 철저히 배격한다. 기업들이 자국의 테두리를 벗어나 해외에 생산시설을 마련하고 현지화에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하에서 한국의 통신업계에 해외 생산시설을 짓기 위해 투자하라고 말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듣더라도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국의 통신업계에 해외투자를 고려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해외투자를 실행할 여력이 없다면 진출계획이라도 철저히 세워두라고 말해주고 싶다. 해외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마스터플랜은 필수이다. 진출할 지역의 시장조사, 현지 생산시설을 계획할 경우 생산시설이 들어설 구체적 지역 선정, 노동인력확보, 연구/생산 인프라의 구비 여부 등이 모든 변수들을 파악하는 일은 한두달,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필자의 해외투자상담 경험상 위에 열거한 조건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최소한 3 ~ 5년여의 시간을 요한다.

또한 투자지역을 선정하고 투자협상을 하는 데는 2 ~ 3년 정도가 소요된다. 한국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벗어나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 3 ~ 4년여의 세월을 필요로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계산대로라면 현재의 경제상황을 벗어난 후 제대로 해

외시장을 공략하려면 앞으로 짧게는 8년 후, 길게는 12년 후가 될 전망이다. 너무도 가혹한 기간의 세월이다. 이미 굳어진 시장구도를 뚫고 들어가기에는... . 변화는 기회를 낳는다. 기회는

도전을 잉태한다. 한국의 통신산업은 국책사업으로 선정됐을 만큼 기술면에서 규모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소견이다. 한국의 통신업계는 자국내 시장에 안주

하지 말고 세계로 진출하기를 권한다. 한국의 통신산업은 지금 머나먼 '도전의 길'을 떠날 준비를 시작하여야 할 때이다.

표 1: 유럽 통신장비 시장 전망 (단위 : US\$ 백만)

분야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 성장률 (1997-2001)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7,907.1	\$8,693.9	\$8,848.3	\$8,776.6	\$8,319.7	1.3%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1,339.1	\$1,306.8	\$1,278.7	\$1,307.0	\$1,261.3	-1.5%
허브	\$1,024.7	\$834.4	\$650.0	\$499.4	\$377.7	-22.1%
스위치	\$2,154.6	\$2,866.9	\$3,132.6	\$3,218.2	\$3,108.2	9.6%
디지털 광역 네트워크	\$1,660.4	\$1,942.2	\$2,226.5	\$2,515.8	\$2,740.7	13.3%
백본 라우터	\$1,728.3	\$1,743.7	\$1,560.6	\$1,236.3	\$831.9	-7.1%
원격접속	\$4,296.9	\$4,921.3	\$5,216.4	\$5,245.7	\$5,080.2	4.3%
모뎀	\$1,757.8	\$1,601.3	\$1,367.3	\$1,112.7	\$889.4	-15.7%
ISDN	\$759.6	\$893.0	\$981.6	\$1,013.6	\$1,001.1	7.1%
원격접속 콘센트레이터	\$534.9	\$798.1	\$997.5	\$1,108.2	\$1,165.5	41.3%
원격접속서버	\$206.8	\$194.8	\$183.6	\$172.1	\$160.4	-6.9%
원격접속 라우터	\$1,037.8	\$1,434.0	\$1,686.5	\$1,839.1	\$1,863.8	28.6%
음성 커뮤니케이션	\$6,172.4	\$6,248.1	\$6,368.8	\$6,441.3	\$6,523.5	1.4%
PBX/KTS	\$2,565.3	\$2,443.3	\$2,379.2	\$2,334.9	\$2,306.9	-2.6%
ISDN 및 무선전화	\$2,251.8	\$2,271.4	\$2,315.5	\$2,291.8	\$2,258.4	0.1%
자동 호출 분배	\$461.4	\$514.7	\$565.4	\$618.7	\$666.7	9.6%
음성 프로세싱	\$893.9	\$1,018.7	\$1,108.7	\$1,195.9	\$1,291.6	9.6%
개인 휴대용 통신	\$17,495.8	\$18,208.1	\$18,290.6	\$18,691.9	\$18,050.8	0.8%
이동통신	\$9,649.5	\$10,684.4	\$11,231.0	\$11,874.9	\$12,261.3	6.2%
통신인프라시장 총계	\$7,846.3	\$7,523.7	\$7,059.7	\$6,817.0	\$5,789.5	-7.3%
공공 네트워크 장비	\$17,695.6	\$16,983.5	\$16,810.4	\$16,831.8	\$16,949.2	-1.1%
케이블 전송	\$2,004.7	\$2,024.2	\$2,016.3	\$2,021.8	\$2,100.0	1.2%
중앙통제소	\$8,539.0	\$7,924.2	\$7,886.9	\$8,020.3	\$8,160.2	-1.1%
지역 회선	\$1,126.0	\$1,155.1	\$1,177.2	\$1,219.8	\$1,276.4	3.2%

분야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 성장률 1997-2001
기타 장비	\$6,026.0	\$5,880.0	\$5,730.0	\$5,570.0	\$5,412.7	-2.6%
총계	\$53,657.8	\$55,054.9	\$55,534.5	\$55,987.3	\$54,923.5	0.6%
개인 휴대용 통신 장비	\$35,872.2	\$38,071.5	\$38,724.1	\$39,155.5	\$37,974.3	1.4%
공공 통신 장비	\$17,695.6	\$16,983.5	\$16,810.4	\$16,831.8	\$16,949.2	-1.1%
공공 네트워크 서비스 총계	\$220,199.4	\$240,134.3	\$260,298.2	\$280,226.6	\$298,330.7	7.9%
고정망	\$188,116.2	\$199,630.7	\$211,154.8	\$222,715.6	\$233,978.3	5.6%
이동통신망	\$32,082.6	\$40,503.3	\$49,143.3	\$57,511.0	\$64,352.3	19.0%
총계 (Services and Equipment)	\$273,767.1	\$295,189.2	\$315,832.6	\$336,213.9	\$353,254.2	6.6%

자료출처 : 데이터퀘스트(1997년 9월 추정치), 1997 11월

표2: 유럽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 디지털 이동통신 단말기 (단위: 천 개) * 아날로그 이동통신 단말기 (단위: 천 개) * 아날로그/디지털 이동통신 단말기 (단위: 천 개)

주요 국가	1997년	2001년 추정	주요 국가	1997년	2001년 추정	주요 국가	1997년	2001년 전망
오스트리아	4395	1,121.1	오스트리아	375	145	오스트리아	477.0	1,135.6
덴마크	611.7	1,051.5	덴마크	32.1	0.0	덴마크	643.9	1,051.5
프랑스	1,503.3	7,867.6	프랑스	7.7	0.0	프랑스	2,638.9	7,867.6
독일	4,017.2	8,802.7	독일	38.8	1.2	독일	4,056.0	8,803.9
이태리	4,560.5	8,294.8	이태리	782.8	427.8	이태리	5,343.3	8,722.5
스페인	2,512.6	5,098.4	스페인	268.1	18.8	스페인	2,780.7	5,117.2
영국	3,044.7	7,546.6	영국	453.9	8.3	영국	3,498.6	7,554.9
유럽 전체	24,045.6	51,759.8	유럽 전체	2,014.2	630.1	유럽 전체	26,059.8	52,389.9

자료출처 : 데이터퀘스트, 1997년 9월

자료출처 : 데이터퀘스트, 1997년 9월

자료출처 : 데이터퀘스트, 1997년 9월